

[12시에 만나요] 변동성 폭발한 이번 주 증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방송일: 2026년 7월 3일 금요일 | 시청자 눈높이 맞춤 요약본

1. 널뛰기하는 주식시장,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이번 주 주식시장은 그야말로 롤러코스터였습니다. 금요일 코스피 지수는 다행히 **3% 가까이 시원하게 반등**하며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1조 3천억 원어치나 주식을 팔아치우며 시장을 흔들었지만, 다행히 기관 투자자들이 이 물량을 고스란히 다 받아내며 소중한 주가를 지켜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대형 바이오 주식들이 힘을 쓰지 못해 3% 가까이 밀리면서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2. 미국 시장은 반도체가 폭락했는데 왜 사상 최고가인가요?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 지수가 5%나 빠졌다는 뉴스를 보고 가슴 철렁하셨을 텐데요, 신기하게도 다우 지수는 오히려 **사상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돈이 아예 빠져나간 게 아니라, 너무 많이 오른 반도체 주식에서 돈을 조금 빼서 그동안 못 올랐던 헬스케어, 금융, 소비재 주식으로 이사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전문 용어로 '**순환매 장세**'라고 부르는데, 시장 전체로 보면 자금이 계속 돌고 있다는 뜻이니 큰 패닉에 빠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3. 메타 악재와 고용지표 발표, 진짜 실체는?

- **메타(Meta) 주가 폭락의 진실:** "AI 클라우드 사업에 진출해서 대박이 날 것"이라는 소문에 올랐던 메타 주가가 하루 만에 5% 폭락했습니다. 마크 저커버그가 비공식적으로 "우리 AI 개발이 생각보다 좀 늦어지고 있고, 조직도 빠격거린다"고 털어놓았기 때문인데요. 시장을 뒤흔든 무시무시한 악재 같아 보였지만, 알고 보니 소문과 말 한마디에 시장이 과하게 반응한 해프닝에 가까웠습니다.
- **미국 고용지표 반토막, 이게 왜 호재일까?:** 미국의 6월 고용 지표가 전문가들 예상의 딱 절반 수준(5.7만 명)으로 나왔습니다. 상식적으로 경제가 안 좋다는 뜻이니 나쁜 뉴스여야 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이러면 연준이 금리를 더 올리지는 못하겠네!**"라며 오히려 안도하는 '역발상 호재'로 해석되었습니다.

4. 왜 이렇게 반도체 주식은 매일 불안하게 널뛰기를 할까요?

최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주가가 하루에만 7%씩 위아래로 출렁이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회사의 실적에 문제가 생겨서가 아닙니다. 전 세계의 많은 파생상품과 레버리지 투자(빚을 내서 하는 투자) 세력들이 SK하이닉스 같은 주식을 투기성 타깃으로 삼아 흔들어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의 알맹이(가치)는 튼튼한데, 주변의 파도(파생상품 거래)가 너무 높아서 멀미를 유발하는 상황입니다.

5. 가뭄에 단비 같은 삼성전자 소식과 금융주의 약진

이 와중에 삼성전자에 큰 호재성 보도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유명 AI 기업인 '앤스로픽'이 비싼 엔비디아 칩 대신 자기들만의 맞춤형 칩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를 **삼성전자의 최첨단 2나노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에 맡기는 것을 진지하게 논의 중이라는 뉴스입니다. 만약 계약이 성사된다면 그동안 적자로 아픈 손가락이었던 삼성의 파운드리 사업이 단숨에

대박을 터뜨릴 기회가 됩니다. 한편, 반도체가 주춤하는 사이 튼튼하고 배당 많이 주는 은행과 증권주들이 5~7%씩 급등하며 시장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3가지 행동 지침

- **급하게 사지 말고 '안정'을 확인하세요:** "지금이 바닥인가?" 하고 급하게 불나방처럼 뛰어들면 체하기 십상입니다. 주가가 하루에 움직이는 폭이 좁아지며 암전해질 때 진입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안전하게 분할 매수로 접근하세요.
- **내 계좌의 튼튼한 '철밥통'을 만드세요:** 전체 주식 비중의 10~20% 정도는 매달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배당을 따박따박 주는 은행주 같은 '안정형 주식'을 바닥에 깔아두어야 멀미나는 시장을 견딜 수 있습니다.
- **행동하기 전에 주말 동안 '계획'부터 세우세요:** 많은 투자자가 계획 없이 행동(매수·매도)부터 먼저 합니다. 주말 동안 내가 가진 주식을 꼭 살펴보고, "얼마까지 내려가면 더 사고,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나만의 시나리오를 세운 뒤 월요일 시장을 맞이하세요.